

한전 ‘빛가람 에너지통합관리 플랫폼’ 우수사업

혁신도시 입주 가구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제공
국토부,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서 15건 선정

나주 혁신도시를 ‘에너지 특화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프로젝트가 전국 혁신도시 우수사업으로 뽑혔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일 전북 혁신도시 그랜드 힐스호텔에서 열리는 ‘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에서 한전 ‘빛가람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등 15건이 혁신도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는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그동안 거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 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산업 특화발전 ▲정주여건 개선 ▲상생 발전 부문에 기여한 우수사업 15건을 선정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빛가람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정주여건 부문)과 ‘유류공간 활용형 원도심 상권활성화’(상생 발전)이 우수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한전은 나주시와 협력해 빅데이터를 활용, 혁신도시 에너지 공급·소비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는 ‘에너지 특화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에너지 자립과 온실가스 감축도 목표로 두고 있다. 혁신도시 입주 가구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전

가·수도·난방 등 5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게 된다.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사업은 크게 ▲에너지 특화형 빛가람 스마트시티 조성 ▲스마트시티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시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으로 나뉜다.

먼저 공공부지를 활용해 도시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신재생설비를 구축하고 전기가 인프라를 확대해 전기가 선도시 기반을 조성한다. 또 에너지와 도시운영정보를 연계해 스마트시티 통합운영 플랫폼을 갖추고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를 공개해 창업기업을 키울 방침이다. 혁신도시 입주가구의 에너지 사용 정보, 태양광 발전량 등은 최적의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쓰인다. 스마트 가로등, 전기가 스마트 주차, 전력 사물인터넷(IoT) 활용 환경정보 제공 등 생활 밀착

형 설비도 마련된다.

상생발전 부문 우수사업에 선정된 ‘유류공간 활용형 원도심 상권활성화’는 원도심 유휴공간에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현재 조성 중인 ‘나주읍성도시재생코어센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북·경남·대구혁신도시 등 3곳이 우수 혁신도시로 뽑혔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송재호 균형위원장, 혁신도시 소관 11개 광역자치단체들은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연간 1회 이상 협의회 개최 ▲북협혁신센터 등 혁신도시 중추기관 건립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광주·전남 사랑카드 기부금 전달식

전남사회복지모금회 1억4338만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10일 전라남도청에서 송중욱 은행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사랑카드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광주·전남 사랑카드는 광주·전남 사랑카드(일반, 플래티늄, 아너스)의 이용금액 0.5%와 광주·전남 사랑기업사랑카드(일반, 아너스)의 이용금액 0.1%를 고객이 선택한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해 고향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카드이다.

올 한해 기부금액으로 총 2억9535만 527원이 적립됐으며, 이 중 전남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이용된 1억4338만 6676원이 전달됐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전남지역 내 사회복지 사업에 6995만6210원, 광주지역

내 사회복지 사업에 5934만5731원 총 1억2930만1941원을 기부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사랑카드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고, 동시에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해주신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께서 보내주시는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사랑카드’는 주요 생활·편의 업종에서 최대 10%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광주·전남 사랑기업사랑카드’는 항공·호텔·여행·렌터카·KTX·SRT·골프 등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아너스카드’는 특별 이벤트로 호텔 라운지 무료음료 제공, 호텔 사우나 무료입장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지역민뿐만 아니라 출향민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아시아나, ‘제29회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아시아나항공이 개발한 항공정보 분석 시스템 ‘Wind - AI’가 ‘제26회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6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경영혁신을 이룬 성과를 인정해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항공정보를 분석하는 ‘Wind - AI 시스템’ 개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안전운항 전반을

담당하는 ‘종합통제’에 AI를 도입해 하루 1만건이 넘는 세계 각국의 항공시설, 업무·절차 변경, 기상 정보 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 제공한다. 특히,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기상정보를 ‘Wind-AI’가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면서 기상으로 인한 화합이 10% 줄었다. 또 예기치 않은 취항지 기상 변경이나 여러 제한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전파해 운항규정 위반 가능성을 대폭 낮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세금 안내문, 이제 문자·카톡으로 받는다

앞으로는 이사 등으로 세금 관련 우편 안내문을 놓쳐 가산세 등을 무는 억울한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부터 각종 국세 신고·신청 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형태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달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채팅 글, 미가입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98.00 (+9.35) ▼ 금리 (국고채 3년) 1.39 (-0.02)
▼ 코스닥 627.11 (-0.75) ▲ 환율 (USD) 1191.30 (+1.40)



귀뚜라미보일러,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7년 연속 선정

대기오염 감소 기술 개발 호평

(주)귀뚜라미(대표 송경석)는 브랜드 가치 평가회사인 브랜드스탁이 지난 9일 발표한 ‘2019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귀뚜라미보일러가 7년 연속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올해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836.6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10계단 상승한 67위를 기록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2013년 98위로 100대 브랜드에 처음 뽑힌 뒤 2014년 82위, 2015년 80위, 2016·2017년 79위, 지난해 77위, 올해 67위로 꾸준히 순위가 끌어올랐다.

귀뚜라미는 친환경 보일러 대중화 시대를 이끌고 있는 대표 기업으로, 보일러의 열효율을 높이면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정부·지자체와 함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지원 사

업’을 추진, 친환경 보일러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거꾸로 NEW 콘덴싱 가스보일러’ 등으로 교체하면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뚜라미가 개발한 저녹스 일반보일러 ‘거꾸로 IN-eco’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농도를 노후 일반보일러(173ppm)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도 응축수는 발생하지 않아 배수구가 없는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 개발에 전념해 온 결과”라며 “친환경 보일러 라인업을 확대해 100% 친환경 보일러 시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고흥 도로 내년 2월 완전 개통

여수 화양~적금 17km

여수와 고흥을 잇는 국도 77호선이 내년 2월 말 완전 개통된다. 앞서 내년 설명절 기간(1월 23~28일)에 임시 개통한다.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도 77호선 중 여수 화양~적금 구간 도로가 내년 2월 말 완전 개통된다.

여수 화양~적금 간 도로가 개통되면, 앞서 완공된 고흥 팔영대교까지 통행이 가능하다.

총 연장 17km의 화양~적금 간 도로 건설공사는 2011년 12월 착공했다.

여수시 4개 섬(조발도·낭도·문병도·적금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908억 원이 투입됐다. 1공구 7.3km(화양

면 안포리~장수리), 2공구 2.1km(화양면 장수리~화정면 조발리), 3공구 3.9km(화정면 조발리~낭도리), 4공구 3.7km(화정면 낭도리~적금리)로 나눠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주요 5개 교량이 모두 연결된 상태이며, 개통을 대비한 막바지 공사 중이다.

설 명절 귀성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내년 1월23일부터 28일까지 구간 임시개통도 추진 중이다.

김규현 익산국토관리청장은 “여수와 고흥을 오가는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